

광주일보 대선 투표 캠페인

#나는\_투표한다 왜냐하면?

## “민주 한국 국민의 바른 정의를 위해”



‘동네줌인’ 대표 김태진씨

“청년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 차별 없는 세상”

광주일보가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제19대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 '#나는\_투표한다 왜냐하면?'에 참여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복지와 정치·경제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꼽았다.

이들은 광주일보 지면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선거참여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와 희망을 앞당겨주기를 고대했다. 소중한 한 표를 모여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보였다.

조선대 인근에서 청년문화 공간 ‘동네줌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진(34) 대표는 “취업난에 좌절하고 부채에 짓눌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힘든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이 빚을 지는 나라가 아니라 청년이 빚을 낼 수 있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도 간절했다. 초등·유치원생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주부 주영이(41·광주시 북구 연제동)씨는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걱정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며 “보육 걱정, 교육비 걱정, 안전 걱정, 미세먼지 걱정 없는 행복한 나라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광주일보 페이스북에서 박성민씨는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를, 양현아씨는 “여성과 약자·소수자가 차별, 소외, 삶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밝혔다.



박성민씨는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를, 양현아씨는 “여성과 약자·소수자가 차별, 소외, 삶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민 이형수씨

조선대 인근에서 청년문화 공간 ‘동네줌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진(34) 대표는 “취업난에 좌절하고 부채에 짓눌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힘든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이 빚을 지는 나라가 아니라 청년이 빚을 낼 수 있는 나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도 간절했다. 초등·유치원생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주부 주영이(41·광주시 북구 연제동)씨는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걱정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며 “보육 걱정, 교육비 걱정, 안전 걱정, 미세먼지 걱정 없는 행복한 나라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광주일보 페이스북에서 박성민씨는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를, 양현아씨는 “여성과 약자·소수자가 차별, 소외, 삶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밝혔다.



박성민씨는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를, 양현아씨는 “여성과 약자·소수자가 차별, 소외, 삶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주부 주영이씨



광주 서구 장애인협회장 김성중씨

## 2017 PINK RUN

### 핑크런 광주대회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에서 핑크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17.5.14.(일요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  
기념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런 사무국 (1688-9744)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http://www.pinkcampaign.com)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MBC, KBC광주방송, KBS광주방송총국

A MORE BEAUTIFUL WORLD /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20by20



##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

오늘 제 19대 대통령 선거 … 내일 오전 2~3시께 당락 결정

### 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제19대 대선 투표가 9일 실시된다. 현정 시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대통령 선거다. 〈관련기사 2·3·4·5·6면〉

이번 대선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 363곳, 전남 873곳 등 광주·전남지역 1236곳을 포함해 전국 1만 3964곳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선거인 수는 전국 4247만9710명으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의 4050만7842명에 비해 197만1868명이 늘어났다.

이 중 재외선거 국외부지자 24만7336명과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4만7297명을 제외한 국내 선거인 수는 4218만577명이다.

이 가운데 1107만여 명은 지난 4~5일 사전투표를 통해 이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며 광주·전남지역 선거인 수는 광주 116만6515명, 전남 157만1201명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 등 광주·전남 27곳의

개표소를 비롯한 전국 251곳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궤위선거로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율이 광주 33.67%, 전남 31.64%로 각각 전국 3위와 2위를 차지한 만큼 광주·전남 최종 투표율이 80%를 무난히 넘어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광주는 80.4%의 투표율로 1위, 전남은 7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이튿날 오전 2~3시께 후보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9일 밤 11시 전후로 당락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개표 마감 시간은 이튿날인 10일 오전 6~7시가 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선의 결정을 위한 중앙 선관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께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전날인 8일 대국민답화를 통해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서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는 이날 각 투표소에 투표 관리관 등을 배치해 투표를 진행하고 경찰과 각 지자체도 투표소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투표장 가실 때 ☂ 꼭 챙기세요”

### 광주·전남 하루종일 비

다. 남해안지역에는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고기온은 12~13도, 낮 최고기온은 16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8일 전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9일 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뒤 10일 새벽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서해안 일부 지역엔 천둥·번개 등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